

“전남은 유기농이 대세”...2만2787ha ‘역대 최대’ 면적

전남도, 친환경농업 내실화 17년 만에 무농약 면적 앞서
전국 60.6% 차지... “품목 다양화 위해 집중 지원 할 것”

전남도는 민선 7기 들어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내실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친환경농업을 중점 육성한 지 17년 만에 유기농이 무농약 인증면적을 앞섰다고 23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 집계 결과 도내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722ha보다 7065ha 증가한 2만2787ha로 역대 가장 많은 면적을

확보했다. 이는 전국 유기농산물 인증면적 3만7610ha의 60.6%에 해당한다. 도내 전체 인증면적 4만4567ha 중 유기농은 2만2787ha(51%)로, 역대 처음으로 무농약 인증면적 2만1780ha(49%)를 앞질렀다. 과수·채소 중심의 품목 다양화도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과수는 올해 목표 1082ha보다 2ha가 증가한 184ha, 채소는 148ha보다

143ha가 증가한 1191ha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민선 7기 들어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집중하고 전국 최초로 유기농 명인 지정, 유기농 지속직불금 지급,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등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산 친환경농산물 1만 8000t(630억원)이 지난해 서울 등 약 6000여개 유치원과 학교에 공급되고, 전남도 내 모든 학교에 연간 3362t(20억원)의 유기농 쌀이 공

급된 것도 한 몫 했다. 이정희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산물 공급망을 학교, 군부대 등 공공급식과 꾸러미 공급사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수출·비대면 판매 등으로 다양화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있다”며 “유기농 중심의 품목 다양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사회적 거리두며 조계사에서 수능기도 드리는 불자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23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출입 인원이 제한된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불교 신자를 비롯한 학부모들이 기도하고 있다.

에너지자립 실증사업에 영암 신기마을 선정

농식품부 주관 공모사업
총 사업비 3억1000만원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1년 농업농촌 에너지자립모델 실증지원사업 공모에 영암군 신기마을이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시·도에서 신청

한 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최종 2개소로 영암군 신기마을과 충남 홍성군 신촌마을을 선정했다. 영암 신기마을은 총사업비 3억10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받으며, 농촌지역 마을회관 등 공동 이용시설을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리모델링해 주민 편의를 높인다.

공동 이용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얻어진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탄소배출을 줄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돼 등유와 전기 등 고비용 에너지를 주로 사용 중인 농촌지역의 에너지 자립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순철 전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탈바꿈한 농촌지역 마을회관이 주민들의 생활편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전남 동부 코로나 집단감염 무서운 기세...가족·지인 감염 지속

순천·광양·고흥·여수 등 전파 사례 늘어... “대면접촉 자제 준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사그라지지 않고 확산추세를 보이는 전남 동부지역에서 가족 간 감염이 지속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23일 순천시는 전날 오후부터 순천 155~158번 등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모두 지인과 가족 간 감염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서면에 사는 순천 155번(전남 355번) 확진자는 남정동 한 주점과 관련된 140번(전남 328번) 확진자의 지인이며, 동선과 접촉자 파악은 마무리됐다. 156번(전남 356번)과 157번(전남 357번) 확진자는 해룡면에 거주하며 151번(전남 349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연향동에 사는 158번(전남 359번) 확진자는 140번(전남 328번) 확진자의 지인이며 자가격리 중 확진으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순천에서는 지난 7일 시중 한 은행 내 감염

을 시작으로 인근 도시 기업체, 헬스클럽, 식당, 학교, 별량면 마을 내 집단감염 등 15일 동안 총 8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1차 확산 시기였던 지난 8월 이후 총 158명이 확진돼 전남 시·군에서 가장 많은 확진 사례를 기록했다. 23일 청정지역으로 분류되면서 단 한 명의 지역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던 고흥군도 아내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첫 지역감염자가 발생했다. 70대 귀농인 A 씨(고흥 2번·전남 358번)는 이달 초 외국에 다녀와 검사 및 격리에 들어간 아내(송과 422번)를 마중 나가 차량으로 이동할 때, 격리 과정에서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마을 내 대인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군에서는 수도권의 확진자가 다녀가는 등 몇 차례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지난 9월 해외 입국한 고흥 1번(전남 161번) 외에 지역에

서 감염된 사례는 없었기에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여수에서도 20일과 21일 연이어 여수국가산단 업체의 교대근무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1명의 가족이 21일 '코로나 19'에 확진돼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광양에서 그동안 발생한 30여건의 '코로나19'확진의 경우도 대부분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감염됐거나, 가족과 지인에게 전파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순천시 임채영 부시장은 23일 비대면 영상브리핑을 통해 “지난 15일간 80여 명이 감염되는 등 급격한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20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해도 가족, 지인 모임, 직장,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으니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면접촉 자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